

# 고 소 장

고소인 곽춘규 (010-3737-7004)

피고소인 이경오, 임경택, 조상환 (서대문 경찰서 근무) 외  
서대문 경찰서장(대표 책임자로서)

오랫동안 사법운동을 하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한 시민운동가로  
참담한 심정을 안고 검수완박의 폐해와 경찰권 남용뿐 아니라 직무유기  
한 경찰관들을 고소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각목폭행 교사 사건은 배후에서 직접 지시한 범죄  
사조직이 있는 사건으로

서대문 경찰서 형사 1팀을 통하여 이경오 수사관과 임경택 팀장, 그리고  
나중에 청문 감사관 조상환 외 다수의 고위 경찰관들과 담당경찰관이

배후에서 지시한 청탁 교사범이 있는데도 잡지 않고 수사를 축소하여  
단순 폭행으로 기소 송치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은폐사건으로 서대문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사건  
을 축소 조작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법개혁, 사법변혁 운동을 한다고 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동네 파출소에서 진술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해당 파출소  
경찰관은 경찰서에 가서 다시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면, 경찰차로 경찰서

까지 데려다 주었고, 형사과에서 20여분을 기다리니 한 수사관이 나타났고, “담당 수사관인데 그냥 가”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피해자 진술도 받지 않고 가라 그러느냐”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하였으며,

(자세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첨부서류 : 수사관기피 이유서 1 부)

배후가 있는 각목 폭행 사건을 이렇게 피해자 진술도 받지 않고, 곧장 송치하여 배후에서 교사한 범죄사조직을 사건 꼬리 자르기로 수사하지 않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축소 은폐한 직무유기 사건축소는폐 사건인 것입니다.

연일 검수완박의 여론이 높던 2022년 4월, 이 같은 시기에 사건이 일어 난지 1개월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수사관조차 바꾸어 주지 않고 청문감사 위원회 연다고 1달을 기다리게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언론에서는 매일,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 되면 국민, 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세를 펴고 있었고 가장 큰 폐해가 경찰의 수사지연과 부실을 우려한다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예측이 제 사건에서 정확하게 맞아들은 것입니다.

1 . 수사지연

2. 수사부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각목폭행사건과 타이어 대못사건에 적용된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사법변혁운동을 진행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적절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저의 입장에서 그냥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직접 제가 수사권이양 후의 경찰에서 사건을 겪고 보니 참 뭐라 말하기 우스웠고, 이런 일을 보려고 20년을 사법변혁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나 싶은 맘이 들었습니다. 심사숙고 하다가 이제야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겠기에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수사관 교체신청과 결과가 나기까지를 시간 순으로 진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각목폭행사건 발생

2022년 4월 22일 서대문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사관 교체신청

2022년 4월 27일 청문감사실. 기피신청이 불수용되어 공정수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문자음

2022년 5월 25일 오후 2시 공정수사위원회 개최예정 참석요구

2022년 5월 25일 오후 4시 38분 기피신청 불수용 문자음.

이와 같이

약 1개월 뒤에 청문감사관 실에서 본 건에 대한 위원회가 열립니다.

답변할 내용을 준비하여 참석했고, 단순히 이전 사건 수사에 부실했던 이경오 수사관을 교체해 주면 될 일을 이런 요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좀 이상해서 미리 문서로 자세히 수사관 기피이유서를 만들어 7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청문감사실에는 긴 탁자가 준비되었고, 안쪽에 청문감사관이 앉았고 앞쪽에는 젊은 경찰관들이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 1명이 서서 진행을 해 나갔는데, 진행이 시작되자 준비해 간 기피이유서를 1부씩 모두 나누어주고 내용을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읽지도 않고 어떤 결정을 할까봐 진술하듯이 읽어주었습니다.

청문 감사실의 분위기는 재판받을 때의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그렇게 진술이 끝나자 이경오 수사관을 부르며, 이제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고, 2시간 정도 있으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기각되었다고, 즉, 수사관교체는 안된다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사관 교체신청과 결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이전 사건에서 아주 부실한 수사를 한 수사관에게 또 수사를 받고 싶은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수사관은 한 팀에도 대여섯명이나 되는데, 검사, 판사와 같이 엄격하게 하여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면, 15만명의 판검사를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동수사에 따라 수사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는데, 바로 직전 사건에서 미온적 대처뿐 아니라 부실하게 전화 2통으로 끝낸 수사관에게 두 번째로 또 다른 사건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건 은폐축소한 각목폭행 사건은 배후의 교사한 자를 숨겨주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피해자 진술조차 받지 않고 곧장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한 수사관과 서대문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사건축소은폐 합작 사건인 것입니다.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용산 참사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내용으로 보통 경찰서 서장은 정보과장 외 중요부처 장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매일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볼 때 청문감사관 조상환 뿐 아니라 서대문 경찰서장까지 개입 되어 있을 것이란 심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보다 더 윗선까지도.

왜냐하면, 저는 사법변혁 운동을 20년 넘게 해왔고, 이런 이유로 늘 서대문서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로 이 당시에

검수완박 이슈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였는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한심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뒷선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 두었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당사자인 이경○ 수사관에게 “그냥 단순히 바꿔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황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묻자, 위에서 하는 일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에 더하여 다른 범죄까지도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검수완박의 폐해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첨부서류 : 수사관기피 이유서 1 부

2023. 2. 8

고 소 인 곽 춘 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귀중**